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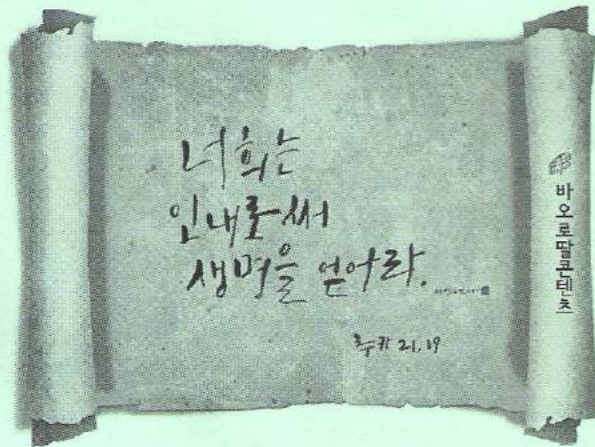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3주일 평신도주일
제36권 50호(다해) 2016년 11월 13일

[묵사]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평신도주일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자신과 이웃을 밝게 비추는 구원될 신앙인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구원을 지향하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진리와 가치를 새로이 되새기며
교회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과 일치 사랑으로 친교하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본당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전례와 성사에 정성껏 임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당을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친교와 화합의 교회,
말씀으로 깊어지고 잘 영근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갑시다.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드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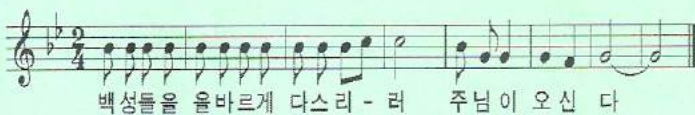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김귀영 & 권순기, 정선결 모니카
	(생)민석준 토마스 & 미애&민영준 마르코 & 민지 & 미아& 니나
주일 학생	(연) 성재명 요셉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율리안나, 양한석 루치아노, 최창출 스테파노, 낙태아들의 영혼, 돌아가신 모든 영혼, 권태하, 윤기진 & 고간난, 안병무 & 유무서 & 안준환 미카엘, 구옥선 사비나, 김수미혜 아네스, 이사범 로벨도, 연옥영혼,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유베로니카 & 장 우슬라
	(생) 우영희 엘리사벳 & 방미숙 마리아 & 김현숙 벨라멧타, 손석 스테파노 & 손두화 스테파니아, 황운재 베드로가정, 박정미 클라라, 오경자 시라 & 오미령 레지나, 최동한 안드레아, 오희중 마르코가족 & 이이그 스테파노, 민원희 안나, 황계희, 김상규 니콜라오 & 김성민 카타리나, 티파니 권 요세파나,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Prophet Malachi) 3,19-20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
리신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Thessalonians) 3,7-1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복 음 루카(Luke) 21,5-19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1. 분단 시대의 교회

1. 분단 시대 출현과 교회(1945~1953년)

1-2. 분단 정권하의 교회

이는 한국 교회가 염원하는 독립 국가의 수립이었다. 교황 비오 12세도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왔다. 그러나 북한 교회와 신자들은 공산 정권 성립에 정서적으로나마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당이 민족주의 정당으로 조직되었다. 이 정당은 창설 초기에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 노동당에 대항하며 활동하였다. 이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유력한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조선 민주당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민 정권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주류를 점하면서, 친교회 인사들은 새로운 정권 창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1-3. 한국 전쟁과 교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전쟁 때문에 북한 지역 교회 활동은 거의 정지되었다. 북한 교회의 활동이 본격적 타격을 받기 시작한 때는 1949년 이후부터이다. 이 해에 평양교구의 홍용호 주교가 체포되었고, 함경남도 덕원의 성 베네딕도 수도원 원장 사우어(Sauer, O.S.B., 신 보니파시오, 1877~1950년) 주교도 이때 체포되어 뒷날 옥사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직자들은 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24일까지 거의 모두가 체포되거나 전쟁 중에 살해되거나 행방 불명되었다. 대부분의 성당과 교회 기관은 폐쇄되었다. 전쟁에 앞서 1949년에는 베네딕도 수도원이, 1950년에는 평양에 있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가 해산되었다.

한국 전쟁은 대구교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교회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남한에 있던 교회 건물 상당수가 전화를 입어, 해방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교회 사업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전쟁 기간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가 없었으며, 출판물도 간행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교회는 전쟁 기간에 적지 않은 인적 손실을 입었으니, 성직자, 수도자, 지도급 신자들의 피랍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가해는 전쟁 초기부터 인민 정권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50	250	350
봉헌	270	270	269
성체	106	106	291
파견	347	347	220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오늘은 마흔아홉 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 활동으로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한다.”(「평신도 교령」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 ‘사제 생활과 직무에 관한 교령(6항)’에서는 “사목자의 임무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 본래의 임무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도적 정신을 실천하는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복음적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꾸준히 가르쳐서 복음과 교회의 정신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신도의 고유한 특징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원리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눈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화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도적 소명, 신앙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가꾸고 지켜온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들의 믿음과 희생, 순교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한국 방문 때 여러 차례 강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잘 지켜나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 빛과 희망이 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

오늘 루카 복음은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예표로 삼아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도록 믿음의 인내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부당한 현실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인내야말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현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 성당 주임

거저는 없다

무엇을 얻는 것에 거저는 없는 듯합니다.
그것이 설사 빈 의자에 앉는 일이라도 말이죠.
어떤 의자라도 앉으려면 무릎을 굽혀야 하니까요
내 차라고 해도 운전석에 앉으려면
먼저 허리를 굽히고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너무 쉽게 이루어 지는 일일수록
한 번 더 짚어봐야 하는 게 그래서가 아닐까 해요.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친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점심: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성당 별 성가경연대회 자량
- 장소: 엘 도라도 파크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호세 고메스 대 주교님
- 주관: 성 그레고리 천주교회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남가주 추수감사절 성가경연대회

- 주일 13일과 20일 추수 감사절 성가 경연대회 연습 시간을 참가자들의 요청과 좀더 많은 참석을 도모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후 바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 13, 20일 1시 시작
- 곡명: I Will Follow Him
- 문의: 김용 스테파노 ☎ (310)926-2248

◆ 대림특강

- 일시: 대림 1, 2주 11시 미사 중
- 장소: 성전
- 주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
- 강사: 양성욱 바오로 신부(성 김대건 안드레아성당)

◆ 요셉회 11월모임

- 일시: 11월 20일 주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추수감사절 특별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부동반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주일학교 교사 & 배론 청년 일일 피정

- 일시: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8시
- 장소: St. Mary's Catholic Church(지도: 김 마티아스 신부님)

◆ 주일학교 Thanksgiving 행사

- * Clash of Cans, 캔 푸드 모으기*
- 11월 한달 동안 기부된 모든 canned food를 LA Food Bank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 추수 감사절 연휴 휴강

- 다음 주일(27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3일: * 하버/카슨: 배추된장국(\$3)
* 주일학교: 미역국밥 (3학년)
- 11월 20일: * PV1,4반: 북어국(\$3)
* 주일학교: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권오상 김교복 김기정 김병태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여순 김 욱 김일선 김재영 김정웅 김종렬 김현숙 김형순 남명자 남성철 노혜숙 박씨니 박음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배태임 변복순 성미선 송영미 양영관 양영자 오세원 오수인 오신재 우영희 유선식 유철희 이근모 이근태 이상석 이영희 이은정 이정분 장은희 정규숙 조소영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미열 최수복 최지영 한장환 한창주 현석주 홍석인 황인중	성전헌금	강인모 권오상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현숙 김형순 남명자 남성철 노혜숙 박씨니 박음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변복순 양영관 양영자 오세원 오수인 유선식 유철희 이근모 이근태 이상석 이영희 이정분 정규숙 조소영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미열 최지영 한장환 한창주 황인중
	합계:\$ 5,560		합계 : \$3,180
주일미사헌금 :\$2,639		주일학교 : \$100	2차헌금: \$595

◆ 주일학교 밴드부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밴드부에서 학생 피사 시간에 활동할 밴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음악에 관심이 있는 주일학교 9학년 이상 학생
- 연락처 : 밴드부 또는 주일학교장

◆ 한국학교 TA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SAT 시험을 마친 학생으로 9학년 이상.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이메일 : 103skecks@gmail.com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ecks@gmail.com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제 2회 주사위 정기공연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모인 남 가주 내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 일시 : 11월20일(주일) 저녁 5시
- 지도 :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또 주임신부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회관 (벌몬과 아담스)
1451 Dana St. LA, CA 90007

◆ 제 36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6년 11월27일(주일) 낮 1시~5시
28일(월)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 ignhanddrip@gmail.com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 원서 교부처 : 바오로의 딸 서원, 성 바오로 서원
<http://uus.pauline.co.kr> 인터넷 다운로드
- 우편성경공부 : uus@pauline.or.kr
- 이저러닝 성경공부 : e-learning@pauline.or.kr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지경수 마태오 11/16(수)오전11시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김정웅 요한 11/12(토)오후6시30분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18(금)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11/19(토)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형삼 요셉 11/12(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1/8(화)10/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11/18(금)7/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15(화)오전11시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김희연 루시아 11/19(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기호 스테파노 11/6(일) 오후5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2(토)오후7시 성당2층 룸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11/11(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11/11(금) 오후7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박은혜 클라우디아 11/13(일)1시 성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11/8(화)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 주일 단체모임

--	--

욕망 알아 채기

가끔 “탤런트시죠?”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달란트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시다시피 탤런트라는 말은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각자의 타고난 자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님께서 주신 재능. 그렇다면 저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욕망 알아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물 내면의 욕망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알아채다? 좀 생소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 저 자신으로 말이죠. 정수영 그라시아 30대 중반, 기혼, 모태신앙의 평범한 인물인 그는 현재 부담감에 시달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수 없이 주제를 바꾸고 백지화시켰죠. 마음속으로 ‘도저히 못 쓰겠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라며 깊은 좌절감에 꿈꿨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좌절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왜, 이 인물은 좌절감을 느낄까요? 그건 기대치 때문입니다. 그것에 못 미치는 만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한다”라는 기대치. 그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욕망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제 좌절감의 씨앗이 되는 욕망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땐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제 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욕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 빛으로 제가 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신기하게도 어떤 방식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고해성사 중에 신부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늘 죄에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한 주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처럼 불완전한 제가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던 겁니다. 교만은 나를 좌절감에 빠뜨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단지 진실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제 정수영이라는 인물은 그간 그를 괴롭히던 깊숙이 숨겨졌던 욕망이 밝혀져서 교만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는 다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배우가 인물의 내면을 분석하는 과정, 나를 죄로 이끄는 부정적인 욕망 찾기. 좋은 배우가 되는 지름길! 탤런트인 제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 정수영 그라시아 / 배우

거리에서 피어난 꽃

뉴욕 브루클린의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상을 향해 힘찬 울음소리를 터트렸습니다. 엄마 나이 14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14살의 어린 엄마와 함께 거리를 전전했고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나 노숙자 쉼터에서 머물렀고 때론 노숙자들의 위협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오프라 윈프리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마약과 매춘부, 냄새 나는 길거리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라난 그녀였지만 언제나 희망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한 뒤 냄새가 나지 않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녀를 보고 거리의 포주들이 놀렸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무슨 학교야?”, “애 나랑 같이 일이나 하자.”, “전 대학에 갈 거예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대학?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들어가 운명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며 매달 네다섯 권의 책을 읽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사회단체와 장학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절박했던 소녀의 편지에 감동한 단체들은 그녀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녀는 순조롭게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등 미국 전역 20여개의 명문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에 감명받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관은

“당신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잃는 것입니다. 하버드가 부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마침내 하버드라는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퍼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한 번도 가난을 핑계대지 않았습시다.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노숙자였던 그녀의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Khadijah Williams)’, 그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불행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시다. 2009년에는 꿈에 그리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으며 2013년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워싱턴 D.C의 교육 공무원이 되어 홀리스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 가톨릭 굿 뉴스 / 햇별 한 줌

'주님의 날'을 선포한 요엘 예언자

주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 재해로 많은 백성이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메뚜기떼가 기슭을 부리고 가뭄까지 겹쳐 곡식이 고갈되어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외적까지 쳐들어와 백성들은 큰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물과 제주가 동이 나서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의식까지도 못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제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엘 1,1-14

요엘은 메뚜기떼의 습격을 통해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알리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엘은 하느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의 원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요엘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엘 2,1-12

요엘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재앙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회개가 외적일 뿐 아니라 진실한 회개이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무엇을 찢어야 한다고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엘 2,13

요엘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에즈라의 개혁 이후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재지변으로 많은 나라가 피해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메시지를 찾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옛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떠난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전하며 하느님께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요엘 2,12)

“옷이 아니라 너희 ()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하는 이다.”(요엘 2,13)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세상의 눈은 저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교회 문이 닫혔을 때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깊이 들여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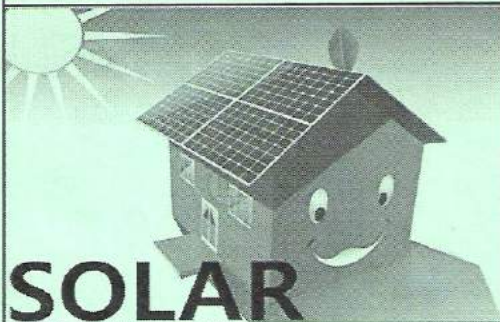
- 아르스의 성요한 비안네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재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잭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